

[사회]

사회 풍자 돌발풍선 열풍

네트즌들 각종 사진에 재미난 대사 달아
게시물마다 조회 폭발하며 선풍적 인기

“자그마한 말풍선 한 개로 사회를 풍자할 수 있는 ‘돌발풍선’을 아시나요?” 주요 언론기관과 포털사이트가 홈페이지에 개설하기 시작한 ‘돌발풍선’ 코너가 네티즌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간단한 조작으로 YTN의 ‘돌발영상’ 프로그램과 비슷한 풍자물이나 패러디를 만들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돌발풍선’ 코너는 네티즌들이 각종 사진에 재미난 대사를 달는 공간. 대사 입력란이 만화처럼 말풍선 모양을 하고 있어 ‘돌발풍선’이라 불린다. ‘돌발풍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몇 컷으로 제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는 1~3컷까지만 가능하다. 컷 수를 결정하면 풍선을 달 사진을 고를 수 있다. 시사·연예·스포츠 사진이 각각 200~400장씩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진을 고른 뒤 창의성이 돋보이는 말풍선을 사진 속 인물 옆에 적절히 배치하면 ‘돌발풍선’이 완성된다. ‘말풍선’ 1개에는 20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 1컷에는 최대 3개의 ‘말풍선’을 배치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돌발풍선’은 현재 40여 개이며, 게시물 당 조회 수가 많게는 1만8천여 회에 달할 정도로 네티즌의 관심이 많다. 내용은 부동산 정책 풍자부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뿔따구’라는 네티즌은 이명박 전 장관과 손학규 전 지사가 서로 다른 곳을 보며 함께 앉아 있는 사진에 ‘뿔이 싸웠어? 싸우지마. 둘 다 망해’라는 말풍선을 달아 한나라당의 내분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이디 ‘이찬’은 최근 탤런트 이찬의 이명영 폭행 논란을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과 이찬의 사진으로 풍자했다. 최홍만이 주먹을 불끈 쥐고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 네티즌들이 직접 만들어 유통하는 만큼 일상 생활을 소재로 가벼운 재미나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것들이 많다.

있는 사진에 ‘주먹이 쓰고 싶으면 나랑 하자’라는 풍선을 단 뒤, 이찬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에는 ‘왜 그러세요. 저도 상대 봐서 때려요’라는 대사를 단 것이다.

‘돌발풍선’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UCC(User Created Contents)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자나 시청자, 청취자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가만 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원태 교수는 “일반인들도 사회 현상을 전달하고 풍자할 수 있는 ‘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발풍선’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돌발풍선’. 정치·경제·사회문제에서부터 연예계 속사정까지 신랄하게 풍자한다.

방문취업제 시행 나흘...광주출입국사무소 가보니
재외동포들 “이젠 맘놓고 일할래요”

곡성의 관낼 제작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김립성 출신 오성수(48)씨는 8일 오전 일찍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이날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꽃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씨처럼 방문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재외동포들로 상담창구가 크게 붐볐다. ‘방문취업제’ 시행 나흘째를 맞으면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평소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하루 평균 40여명의 재외동포가 찾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하고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해 보다 자유롭게 입국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재외동포들도 자진출석시 범칙금을

내고 H-2를 발급 받을 수 있다. H-2를 발급받은 오씨는 “친구에게 방문취업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아침 일찍 서둘러 곡성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며 “단기 비자때문에 항상 불안했었는데 영장이 돼서 안심입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재외 동포들의 취업범위도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비전문직업 자격 대상자들은 노동부가 알선해주는 곳에서 근무하고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김현호(39)씨는 “무엇보다 취업이 자유로워져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H-2 비자에 대한 문의전화를 발급해 보다 자유롭게 입국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재외동포들도 자진출석시 범칙금을



외국인 유학생 “우리는 조선대생”
조선대(총장 김주환)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9일 대학 내 서석숙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7학년도 제1학기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가 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로부터 기숙사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선대에는 신입생을 포함해 총 3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단체, 보상업무 이관 반발

광주시가 최근 5·18민주화운동 보상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5·18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추진위원회’(회장 김정길)는 “그동안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 탈락자

들의 반발을 산 광주시가 이제는 갈등 조정 조차 포기하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들이 보상심의위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고, 보상심의 위 재구성을 지연시킨 것 적지 않음에도 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시는 보상심의위 군사정권 시절의 체계와는 심사기준을 적용, 5차 심사에서 200여명을 탈락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시는 조속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오래 사니 좋은 일 생겼네”

순천 100세 노인에게 100만원 수당 주기로

“오래 살고 불이야” 노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정말 오래 살면 좋은 일이 생겼다. 순천시의회는 9일 열린 임시회에서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100만원의 백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순천시는 지난해 2월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백세수당을 새롭게 만든 것은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현재 순천시 관내 90세 이상 노인은 550여명이고 이 중 100세 이상은 107세 2명을 포함해 모두 25명. 시는 올해 만 100세가 되는 노인만 아니라 이미 100세가 지난 노인에게도 백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백세수당을 만들었는데 전국 최고 장수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정도 前 국회의원 별세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정도(사진) 전 반도실업 사장이 8일 오후 4시 지방에서 별세했다. 향년 83세. 1925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한곡물협회 전남도회장과 전남탁구협회장을 지냈고, 1981년 광주 서구청에서 민주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



해 당선됐다. 유족은 부인 김남수(83)씨와 충실 대한불림협회 회장, 청우(합법)씨, 영천 ㈜HNS 회장, 우통 알리안츠생명 PA 등 4남.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230

생활 기사판

▲이흥재(전남도의원)씨 장남 병태군 홍대영(나주세무서)씨 차녀 은희양=11일(일) 오후 1시 40분 순천시 탐방웨딩 1층 다이아몬드홀.

▲이부봉(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씨 장남 재광군 정영호씨 장녀 로희양=11일(일)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극실. 236-3399

▲김승식(성광 농기구상사 대표)씨 장남 민환군 전민서씨 장녀 인명양=11일(일) 낮 12시50분 청기와예식장 2층 다이아몬드홀.

▲송능자씨 막내 안봉길(광안구청) 박주석(광주시청 과학산업과)씨 장녀 혜경양=11일(일) 오후 1시 영주체육관 국민생활관 2층 영주웨딩홀.

▲김수태씨 차남 영근(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 김영남씨 장녀 은정(광주중앙신문출판조합 근무)양=11일(일) 오후 1시40분 경북공예디자인센터 1층 컨벤션

▲이정도(11대 국회의원)씨 별세 중섭(대한불림협회 회장) 청우(개인사업) 영천(㈜HNS 회장) 우통(알리안츠생명 PA)씨 부친상, 조의현(광산치과 원장) 홍정국(일본IBM 이사) 우창호(목포대 교수)씨 빙부상=발인 11일(일) 서울 아산병원. 02-3010-2230

▲임복식씨 별세 유공용(기아자동차)·상용(개인택시)·삼용(개인사업)·근용(기아산업)씨 모친상 윤태원·조동훈(농장업)·김용국(개인사업)씨 빙부상=발인 10일(토)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381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전 화 : (직)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공시최고 사 전 2007카공 8 신원인 임종필 목포시 용화동 포미주방아파트 107-303 아래 기재 중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6. 25.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중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중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 투 : 마약어음 변 호 : 자기09444028 금 액 : 금 4,818,600원 발 행 인 : 2007년 2월 15일 발 행 인 : 광주법원 장권지원 판사 임 수 회

상속한정승인공고 판 김철호(871204-16552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나단 5 공고인: 김옥술, 사정애 한정승인승리일: 2007. 1. 3 공고기간: 2007. 3. 10~2007. 5. 9 연 락 처: 나주시 금현동 신가리 839-2 김옥술(011-614-4957)

상속한정승인공고 방 송경목(1953년 3월 23일생)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나단 35 공고인: 송재호, 송재문, 송경순, 송경만 한정승인승리일: 2007. 2. 27 공고기간: 2007. 3. 10~2007. 5. 9 연 락 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35 안태현(011-9431-1509)

정정공고 본보 2007년 3월 9일자 13면에 게재된 여수 문수동 피오레 입주자·집중공고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정정내용- 48.21평형 103동 301호, 106동 302호 공급금액 232,800원 238,800(단위: 천원)으로 바로잡는다. 문의 전 화 : 061-652-1588 대우건설주식회사

제 권 판 결 이태덕목기제 중사에 대하여 2006. 7. 18.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6. 10. 30. 16: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중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카공 401 김중식 자기앞수표 번호:라기41129392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6년 6월 2일 발행인및지급인:광주은행 대우동지점 최종소지인:김중식 광주남구 법원동 580-10 2007년 3월 10일 판사 박 정 환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전직렬 문제풀이 2007 공무원 대거채용 교정직특채 출제위원급 통상직 전격출격! 개강: 3월 2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2007 국가직 시험대비 공무원 800이 넘는 문제풀이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 5일 부구청 건너편 전천대 후문앞 234-0234